

국제건축사연맹(UIA) 베이징대회 참가보고

Report on the UIA Beijing 1999

건축실무에서의 전문성 국제기준권고안에 관한 협정' 즉, 건축사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에 관한 국제표준안(세부내용은 본지 9903, 9904월호 참조)이 지난달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국제건축사연맹(UIA) 대회 및 총회에서 정식 채택됐다.

특히 이번 UIA총회에서 주요 의제로 다루어진 「국제기준권고안」 가운데 「건축사의 기본요건」에 관한 부분은 지난 1985년 유럽공동체(EC, 현 유럽연합 EU)에서 채택된 내용을 토대로한 PPC(Professional Practice Committee)의 보고서 내용 그대로가 채택됐고, 이러한 기본요건을 갖추는데 필요한 건축교육으로서, 최소 5년 이상의, 인가된 대학의 인증된 전일제 건축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도 교육기관과 교육과정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게 된 것은 물론 지금껏 생소했던 교육인증프로그램 등을 서둘러 마련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UIA베이징대회를 다녀온 본협회 국제위원들의 참가보고를 통해 이번 제21차 총회의 주요 의결내용과 전반적인 대회 분위기 등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 UIA(International Union of Architects) 대회란?

3년마다 열리는 세계건축사대회(World Congress of Architects) 행사로, 행사 프로그램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여러 건축사 관련 논문이 200편이상 발표되는 대규모 국제행사이다. 행사기간중 세계 각국에서 연구개발되어지는 각종 신건축공법을 비롯해 각국의 각종 현안문제들이 함께 논의되고 토론된다. 특히 건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학업과 관련한 미래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차기(2002년) 개최지로는 독일의 베를린이 예정돼 있으며, 2005년에는 이스탄불에서 개최기로 이번 베이징 대회시 총회에서 결정되었다.

우리 건축계(특히 설계관련 전문직)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각종 사안에 공동대처하고 이에 필요한 필수 학문들을 논의·협약하는 국제적 대회인 만큼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참여가 요청된다.

▶ UIA베이징대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제20차 UIA대회 / 1999년 6월 23일~26일
제21차 UIA총회 / 1999년 6월 27일~29일
- 장 소: BICC(베이징 국제컨벤션센터)
Great Hall of People (인민대회당)

- ▶ 참가자 / 대회: 이관영, 김지덕, 이정근, 조인숙, 김홍일, 신춘규, 이필훈
총회: 김지덕, 이정근, 조인숙

건축사자격 상호인정시대 막을라

김지덕, 이정근 / 본협회 국제위원회 위원

제20차 UIA대회(The XX World Congress of Architects)

23일과 24일 양일간은 종일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했다. 경비가 삼엄하여 필요이상으로 출입을 통제하는 경향이 있었다. 대회당의 수용인원이 크므로 참석자들 모두를 수용할 수 있었다. UIA공식용어인 러시아어, 영어, 불어, 스페인어와 중국어의 동시통역이 원활히 이루어져 소통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 중국의 우량룡 교수와 미국의 케네스 프람튼 교수가 공동으로 본 대회의 주제개발을 주도하였는데 우교수는 '새천년의 건축을 고대하며' 라는 발제문을 발표하고 프람튼 교수는 '새천년을 위한 일곱가지 주문' 이란 논고속에 주제전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14명의 발표자중 이번에 UIA 금메달을 받은 멕시코의 레고레타 빌치스의 작품의 경우 독특한 풍토성과 개

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이스라엘의 건축가 모세 사후디의 발표는 매우 명쾌했다. 앞으로는 주제나 부주제 발표에 한국의 건축가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실력에서나 국제관계에서나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25일과 26일에는 세미나와 심포지엄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므로 본대회 주제관련 세미나, 아시아관련 토론회, 아카시아 포럼, 건축실무와 관련된 세미나 등을 서로 겹치지 않도록 분담하여 참석했다. 본인이 담당하여 참석한 것은 25일 오전 '20세기의 건축: 비편적 모자이크란 주제전과 쌍을 이루는 심포지엄이었는데 케네스 프람튼교수가 대표편집자 역할을 맡아 세계 각 문화권역을 10개로 나누어 권역별로 100개씩의 대표적 건축물을 선정해 몇 달 후 책으로 출판한다고 한다. 본 심포지엄에는 각 권역별 편집자가 발표를 하였는데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아서 체계적인 발표가 되기는 어려웠다. 마침 한양대학교의 이정만 교수가 다른 방에서 발표할 차례여서 달려갔으나 예정보다 일찍 끝나버렸다는 소식을 접하고 아쉬웠다.

25일 오후에는 올 9월 한국에서 열리는 아카

제21차 베이징 UIA총회 채택결의 내용(원문)

UIA Accord on Recommended International Standards of Professionalism in Architectural Practice

RESOLUTION OF ADOPTION	건축실무에서의 전문성 국제기준 권고안에 관한 UIA 협정
Resolved that the Assembly adopts the Second Edition of the UIA Accord on Recommended International Standards of Professionalism in Architectural Practice as an advisory document intended to be used by member sections in setting and reviewing their own standards. The Accord and Guidelines will also make it easier for UIA member sections to negotiate mutual recognition agreements.	결의안 '건축실무에서의 전문성 국제기준 권고안에 관한 UIA 협정' 2차 수정안을 각 회원단체가 그들의 기준을 설정하고 검토하는데 있어 자문 문건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UIA 총회에서 채택하기를 결의하면서 아울러 본협정 및 지침서가 UIA 회원단체의 상호인증협정 협의를 용이하게 해줄것임을 인식하는 바이다. 이에따라,
The Assembly requests that this Accord be transmitted to all UIA member sections with the request for their cooperation and participation in the further development of this policy framework for presentation at the XXII UIA Assembly (Berlin 2002).	UIA총회는 본 협정서를 22차 UIA(베를린 2002)총회 제출을 위해 각 회원단체에 배포하여 협정서의 정책사항 개진에 관한 각 단체의 협조 및 참여를 촉구하고
The Assembly recognizes the mandate of Council to adopt Accord Policy Guideline documents and commend them to the UIA member sections.	UIA총회는 본 협정 정책 지침서를 채택하고 각 회원 단체에 이를 권고함이 이사회의 임무임을 인식하며
The Assembly recognizes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cultures, practices and conditions in different member sections and encourages the member sections to use the documents as advisory documents intended to be adapted to local conditions.	UIA총회는 각 회원단체간의 문화, 관행 및 입장의 차이를 인식하고 본 문건을 각 단체의 상황에 맞춰 자문 지침서로 이용할 것을 권고하며
The Assembly acknowledges that the sovereignty of each UIA member section must be respected in negotiations of mutual recognition agreements and notices that the guidelines are intended to allow flexibility for principles of equivalency and reciprocity and are structured to allow for the addition of requirements reflecting local conditions of a UIA member section.	UIA총회는 상호인증협정에 관한 협의시 각 회원단체의 주권은 존중되어야함을 인정하며 본 지침서는 평등 및 호혜의 원칙하에 유동성을 허용하고 아울러 각 UIA회원단체의 특수상황을 반영한 별도요구사항을 첨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The Assembly authorizes the UIA President and Secretary General to submit the Accord and Guideline documents to national governments,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nd other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as the basis for beginning mutual recognition negotiations between or among UIA member sections.	UIA총회는 UIA 회장과 사무총장 직권으로 본 협정 및 지침서를 UIA회원단체간의 상호인증협정의 시발점이 되도록 각 국 정부와 세계무역기구(WTO) 및 기타 단체와 기관에 제출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PROPOSED RESOLUTION FOR THE ADOPTION OF THE ACCORD	

UIA베이징대회 일정 및 프로그램

일자/장소	행 사 내 용	
6. 23(수) /인민대회당	개막식 개막인선 및 발제강연	- 연설자 및 발제강연자 Mr. Yu Zhengsheng (베이징대회 대회장) Mrs. Sara Topelson de Grinberg (UIA 회장) Mr. Li Ruihuan (중국 인민정치국 운영위원장) Mr. Wu Liangyong (중국) Mr. Kenneth Frampton (USA)
	주제발표 (Keynote Reports)	- 발표자 Jean Nouvel (프랑스) Charles Correa (인도) Ruy Ohtake (브라질) Region 5 A. V. Ikonnikov (러시아)
	UIA건축상 시상식 (Awards Ceremony)	- 시상식진행 : Sara Topelson (UIA 회장) - 수상자 UIA골드메달 : Ricardo Legoretta (멕시코) 팩트리 아보크롬비상 : Karl Ganser (독일) 아우구스트 페렛상 : Ken Yeang (말레이시아) 천 슈미상 : Juhani Pallasma (핀란드) 로버트 메튜경상 : 마틴 트레스 펠크 (오스트리아)
	만찬 (Reception Party)	개막만찬
6. 24(목) /북경국제 회의장	주제발표	- 발표자 Ricardo Legoretta Vikhis (멕시코) Kenneth Yeang (말레이시아) Francois Barre (프랑스) Philip Sutton Cox (호주) Moshe Safdie (이스라엘) Ignacio Añillal (UNCHS) Terry Farrell (영국) Paul Andreu (프랑스)
	문화의 밤	북경오페라 참관 (장소: BICC)
6. 25(금) /북경국제 회의장	"21세기의 건축" 주제발표	- 제1주제: "건축과 환경" Bruno Stagno(코스타리카), Zhu Wenyi(중국) - 제2주제: "건축과 도시" Nil Carlson(스웨덴), Wu Zhigang(중국) - 제3주제: "건축과 기술" Thomas Herzog(독일), Xia Yimin(중국) - 제4주제: "건축과 문화" Colin St. John Wilson(영국), Zeng Jian(중국)
	학생Jamboree 및 작품시상식	- 학생설계경기 1등상 수상자 상품전달식 - 세계 유명건축사와 학생과의 토론회 - 학생작품 발표회, 세미나, 작품설명회
6. 26(토) /북경국제 회의장	부주제 발표	- Ando Tadao 선생 작품 발표 및 연설회 - 건축과 전문직으로서의 건축실무 연구논문 발표 Mr. James Scheeler (미국) Mr. Zhang Qinan (중국) - 건축교육과 젊은 건축가들에 관한 연구논문 Mr. Alexander Kudryavtser (러시아) Mr. Zhong Dekun (중국)
	아시아 태평양지역 특별토론회	- 특별토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특별토론단 William Lim (싱가폴) Rusi S. Khambatta (인도) Tay Kheng Soon (싱가폴) Kwaak Young Hoon (한국) Jimmy Lim (말레이시아) Louise Cox (호주) Song Chunhua (중국)
	중국민족문화공원 탐방	- Ethnic Culture 공원관광 및 폐회식

기타 UIA Working Program

1. Architecture & Culture: Globalization, Cultural Assimilation and Architecture: Integration of Western and oriental Architectural traditions
발표자 : Peter Scriver (호주)
2. Symposium on 20th Century world architectural a critical Mosaic (part one)
참가자: Kenneth Frampton (미국)
Luo Xiaowei (중국)
Richard Ingersoll (미국)
Jorge glusberg (아르헨티나)
Wilfried Wang (독일)
Daniel Walsler (스위스)
Hason-uddin Kahn (미국)

주요 전시행사

- 주제전 / 북경국제회의장
- UIA/UNESCO 학생건축전 입상작 전시회 / 북경국제회의장
- 회원국 작품 및 활동프로그램 / 중국 건축문화센터
- 중국고건축 사진전 / 중국건축문화센터
- 중국건축전 / 중국건축문화센터
- 중국의 현대건축 / 중국건축문화센터
- 중국고건축전 / 북경 고건축박물관
- 건축자재, 장비, 건설기술 국제박람회 / 북경 국립 농업전시관

시아 포럼의 주제와 연관되는 건축과 기술, 건축과 문화의 부주제 발표에 참가하였다. 특히 독일의 토마스 헤르조그는 지역적인 기후조건을 고려하고 전통적인 재료와 현대적인 재료를 조화롭게 사용하여 독특한 디자인을 창출하고 있다. 태양에너지를 최대한 응용할 수 있는 건축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하고 있다. 26일 오전에는 아시아의 건축실무와 교육에 대한 토론회에 참석하였다. 이번 가을 아카시아 포럼에서 갖게되는 교육위원회 워크숍에 관계되는 인사들이 모두 참여하여서 우리로서는 ACAE 워크숍의 준비 및 최종점검을 위한 좋은 기회였다. 이 토론회에서 논의된 여러 문제점과 항목들은 계속해서 9월 서울의 아카시아 포럼의 ACAE 워크숍에서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학생잼버리와 아시아태평양지역 특별토론회

이어 열린 학생잼버리대회에는 중국학생들을 포함 세계각국의 건축학 전공 학생 약 2천여명이 참가했다. 그러나 한국학생은 한 명도 참가하지 않아 큰 아쉬움을 남겼는데 우리 건축학계의 큰 실수가 아닌가 싶다. 왜 우리 학생들을 참가시키지 않았는지 이해하기 힘들었으며 다음 대회에는 우리 학생들도 참가할 수 있도록 배려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26일 오후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특별토론회에 참석하였는데 특히 한국의 광영훈씨가 발표자로 나와서 웅변적으로 내용을 갈파하였다. 몇년동안 UIA납부금을 내지않아 자격정지되었던 북한이 밀린 회비를 납부하고 이번에 참석했다.

북한대표가 나와 발표를 하였는데 김일성의 배려하에 북한의 건축이 잘 발전하고 있다는 식의 상투적인 선전을 함으로써 참석자들 대부분이 어안이 병병했고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뒀다. 토론회의 성격이나 주제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그들도 하루속히 국제사회에 개방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국과의 대화도 가능하리란 생각이 든다.

제21차 UIA총회(UIA General Assembly)

제21차 UIA총회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북경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회의장의 계단식 관람석에 차려져서 회의하기에는 불편하였다. 건축가협회에서는 강석원 전 회장, 김한근 회장, 여영호 교수, 한만원 소장, 조제원 국제위원장 등이 참석하였다. 회장단의 인사와 활동보고 후에는 5개 지역별 보고 및 UIA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이중

미국과 중국측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성안한 '건축실무의 국제 기준 UIA권고안'의 진행과정이 설명되고 통과되었다. 건축교육에 관한 UIA/UNESCO 현장도 통과되었는데 이 내용중에는 건축교육과정 인증 등에서 실무기준과 공통의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두 활동프로그램의 담당자간에 협의 조정하기로 했다. 대회 때마다 논의가 계속되는 회원단체 분담금의 수준과 이에 연동되어 있는 투표권의 수를 정하는 제도에 대해 여러 의견이 개진되었다.

한국은 이번 대회까지는 5표의 권한을 행사하고 다음부터는 6표의 투표권을 가지게 된다. UIA 내각선거에서는 현 사무총장인 스구타스가 단독출마하여 무투표 당선되었다. 새 사무총장에는 불란서의 Jean-Claude Riguet가 당선되고 회계에는 현 회계장인 밀로네를 물리치고 미국의 D. Hack이 맡게되었다. 5개의 지역별 부회장 선거에서 한국이 속한 4구역에서는 말레이시아의 히삼 알바크리가 당선되었다. 이어서 각 지구별 이사회 구성원 선거가 있었는데 4구역에서는 홍콩의 타오 호를 물리치고 싱가포르의 Cheong Chia Goh씨가 당선되었다.

2005년에 개최되는 22차 대회와 23차 총회의 유치를 위해 일본의 나고야, 터키의 이스탄불, 이태리의 플로렌스 등 3곳이 경합하였다. 특히 일본측은 부스를 설치하고 도우미마저 동원하여 적극적인 유치활동에 나섰으며 대사관 만찬에 초대하여 성대한 대접까지 하며 열과 성을 다했다. 홍보물과 홍보비디오도 훌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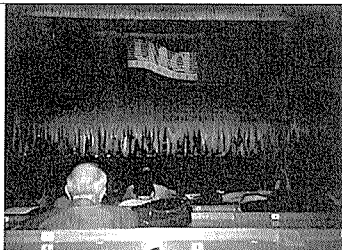
1차 투표에서는 3개 도시의 득표율이 비슷하였지만 이스탄불과 나고야의 2개 도시간의 결선투표에서는 이스탄불이 압도적인 승리를 했다. 일본이 수년전부터 '미래의 건축'이라는 활동프로그램을 수행하고 UIA이사회를 나고야로 초치하는가 하면 아카시아에서도 지원약속을 받았었다. 그러나 이스탄불은 이전에도 여러차례 유치활동에 나선적이 있고 터키

가 속한 2지역에서는 25년간 한번도 UIA대회가 열리지 않았던 점이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다. 터키는 나름대로 Habitat등 활동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한 점에서 인정을 받은 듯 싶다. 2002년에 통일된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서 개최되는 다음 대회에 대한 설명이 있는 후 그 동안 수고한 회장단 및 중국의 관계자들에 대한 감사의 박수로 회기를 마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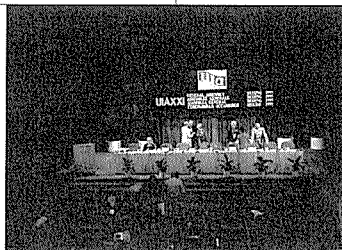
이번 UIA 공식행사 프로그램외에 「Working Program」도 많았는데 특히 대회기간중 열린 건축교육 Forum에 5개국 대표들이 참가해서 현대 건축교육의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한 논의를 했다. 6월 25일(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Report(R) Forums(F) UIA Work Program(WP)이 오전에만 59개 Class에서 59가지의 Work Program이 진행되었으며, 오후에는 36개 Work Program이 진행되었다. 이날 Program에서는 여러가지 주제의 건축관련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6월 26일에는 우리 협회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건축인가교육과정Program, 시험의 기준 및 건축실무에서의 전문성 국제기준 권고안에 관한 UIA 협정 등의 원칙 등 기준의 발표 및 토론이 있었다.

건축실무에서 건축사의 정의, 인가, 인증, 승인, 실무, 경험, 훈련, 인턴기간과 자격, 전문적 지식과 능력의 입증, 등록, 자격면허, 자격증명, 직업윤리, 업무범위, 업무형태, 지적소유권, 저작권 등의 여러 현안들에 대한 연구발표, 논쟁 등 광범위한 쟁점들의 권고지침이 논의 협의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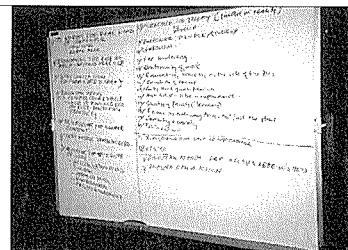
이 PPC(Professional Practice Committee) 보고서는 주로 미국의 James Scheeler씨와 중국의 Zhange Qinnan씨 등 두 사람이 주축이 되어 연구해 왔던 것을 발표했는데, 작성위원회에서 만든 안을 UIA 제20차 회의중 UIA 총회에서 채택했고, 각국 정부가 권고안으로 채택된 승인문안을 각 회원국에게 채택, 실행할 것을 권장한다는 최종 UIA 회장의 공식선포가 있었다.



대회 개회식 광경



UIA총회 광경



교육위크삼 계시판
(논의에서 도출된 사항들을 요약해 적어놓았다)

64년 64년 64년

우리나라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건축교육, 건축사면허 인정, 건축교육과정의 인증 등등 상당한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으나, 일단 채택된 국제기준에 관한 권고지침은 우리나라에서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PPC 권고지침」은 협회가 번역해서 출판할 사안으로 관심있는 분들의 일독을 권한다.

맺음말

전시회는 틈을 내기가 어려워 다 볼 수가 없었다. 주제전과 학생작품경기 수상작 전시회와 중국 고대건축에 대한 전시만 일별 했다. 일부 전시장소는 회의장과 거리가 멀어서 시간을 내서 참관하기가 어려웠다. 개막식, 문화의 밤, 폐막식, 시상식등은 전번 바로셀로나 대회에 비해 연출력이 훨씬 못미치고 상상력의 부족이 여신했다. 그리고 등록비의 액수에 비하면 회기중에 제공하는 음식이나 유인물 등 서비스의 수준이 낮았다. 중국은 이 대회를 통해서 중국내 건축문화의 잠재력을 총동원하여 결집하고 주제개발에서부터 부주제의 전개 등에서 중국의 5개 대학과 중국 건축협회가 외국의 파트너와 공동으로 작업하게 함으로써 최대한 중국의 건축계가 당면한 문제들을 국제적인 시각에서 연구 정리하게 하고 외국과 교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뿐만아니라 우량용 교수가 주관한 'UIA북경현장'을 성안하여 채택케 함으로써 세계 건축사에 중국의 공헌을 공식적으로 기록하게 하였다.

이번 UIA 대회와 총회에 참석함으로써 건축사협회의 국제활동에 미치는 장 단기의 예상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세계규모의 건축행사에 참가함으로써 국제관계의 조류를 읽을 수 있었고 장치 협회의 국제활동 영역을 넓히기 위한 준비단계에 해당한다고 사려됨.

2) 금년 9월 서울에서 열리는 아카시아 포럼 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관련 인사와의 직접 협의.

3) 제10회 아카시아 포럼 홍보물을 UIA대회 및 총회 참석자들에게 배부하고 홍보활동 전개.

4) 북한측 대표와 만나 인사를 교환하고 앞으로 교류를 제의함. 공식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려면 통일부에 구체적인 교류상대를 제시해야 하는데 그 대상의 이름과 직책 및 연락처 등을 확보함으로써 북한과의 건축에 관한 공식적인 교류를 시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5) 아카시아 회장 카시와 협의하여 포럼진행 일정조정 및 전략수립.

6) 테이 켈 순 등 아카시아 포럼에서 활동할 사람들과 직접 만나 역할의 내용 과 진행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

7) Wardi ACAE 위원장, Barry Will 교수 등과 만나 ACAE Workshop의 주제와 진행형식 및 발표자 인선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을 함.

8) 새로 인선된 UIA회장단을 조제원 UIA이사를 통해 9월 아카시아 행사에 초청함으로써 건축사협회 및 한국 건축계의 국제활동 범위를 확대함.

앞서 언급했듯이 특히 이번 UIA 총회에서는 UIA Accord Policy 채택을 이사회에 위임하였고, 각 UIA회원국에 채택을 명할 것을 분명히 했으며, UIA 회장 전 뷰로멤버와 총회 참석 각국 대표가 기립한 가운데 채택을 선포했다.

총회는 UIA회장과 비서장이 UIA Accord와 Guideline을 각국 정부, WTO, 각 국가 국제조직에 상호인정 관련협의 사항을 제출 권한을 위임했으며, 각국 회원국 협회들이 기초로 각국에서 가능한 건축실무에서의 전문직국제기준 권고안에 관한 UIA협정을 적용할 것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물론 우리의 경우 채택안의 적용여부는 우리 정부 정책에 따른다. 우리나라의 현재 실정으로 봐서 건축사도, 건축가도, 대학교육도 UIA Accord Recommended Guidelines에서 기술된 International Standard와는 전혀 다른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제표준에 합당한 제도를 만들려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바, 어떠한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지는 관계 전문가들과의 연구가 있어야 할 줄로 안다.

우선 큰 문제가 건축교육에 관한 UIA/UNESCO 현장에 따라 UIA는 건축가로 키워내는데는 실무경험, 훈련, 인턴기간을 제외하고 최소한 5년간의 건축교육 Program 인가, 인증, 승인, 정규교육과정이 있어야 함을 규정하였는데, 이를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UIA대회의 건축교육관련 소규모 회의

조인숙 / 본협회 국제위원회 위원

중국 베이징에서 1999년 6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열린 국제건축사연맹(UIA)대회 및 총회에 우리협회는 참관인자격으로 참석하였다. 전체구성은 대회전(6월 22일)과 총회후(6월 30일) 열린 제90차 및 제91차 이사회, 23일~26일 제20차 대회(Congress) 27일~29일 제21차 총회(General Assembly)로 이루어졌다. 대회는 23일~24일 양일간에 걸친 주제발표(Theme Reports) 및 기조강연(Keynote reports), 25일~26일 부주제발표(Sub-theme Reports) 및 아시아 태평양지역 특별토론회로 구성되었고, 특히 25일, 26일 양일간에는 소규모학술발표회 및 워크프로그램들의 보고회, 그리고 각지역회의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특히 25일, 26일 양일간에는 보다 많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우리협회의 참석자들이 여러 곳으로 나누어서 참여하였다. 필자는 금년 9월 열릴 아카시아 건축교육위원회 및 워크샵과 관련하여 건축교육에 관한 소규모 학술발표(Small Scale Academic Seminars) 및 각 워크그룹활동보고에 주로 참석하였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축교육관련 소규모 학술발표회의 : 25일 오전, BICC 5017실, 레포트

1) 영국에서의 건축교육의 미래(The Future of Architectural Education in the UK)-폴 하에트(Paul Hyett, UK)

영국건축사협회RIBA 부회장이고 RIBA교육위원회 의장인 건축사 폴 하에트는 UIA/UNESCO Charter를 적극 지지하는 입장에서 우리들의 미래에 직면한 몇 가지 문제, 즉 직업의 본질의 변화, 자금제원의 변화, 건물형상의 변화, 건축사 등록제도의 변화 등을 제기하고 영국학제의 변화에 대해 발표했다. 그리고 건축교육의 영국형모델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 학부 5년 (5 year undergraduate -RIBA Part I)
- 1년 실습 (1 year Practical training)
- 실무 2년 (2 year Practical experience at Post Graduate -RIBA Part II)
- 1년 실무 (1 year Practice -then RIBA Part III Professional Exam)

그는 전날 켄네스 프램턴이 기조강연에서 “우리사회를 교육시키지 않는 한 건축의 질을 높일 수는 없다(We cannot raise the quality of architecture without education of our society)” 인용하면서 발표를 마쳤다. 좀더 정보를 원하면 다음으로 연락할 수 있다.

- www.riba.net
- leonie.milliner@inst.riba.org
- RIBA Center for Architectural Education, G6 Portland place, London, W1N 4AD UK

2) 건축사 훈련에 관하여(On the Training of Architects) - 프랑크 아스만(Frank Assman, Germany)

독일 건축사협회(BDA)의 위원(Board Member)인 건축가 프랑크 아스만은 협회 부회장인 위르겐 브레도브와 함께 준비했던 자료를 발표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금 건축을 수행하는데 일반가가 필요하지 아니면 전문가가 필요한지? (Do we want to have 'General Providers', or Specialist?)
- 대학교육과 전문직업으로서의 실무 (University Education versus Professional Practice)
- 자격을 갖춘 건축교육을 위한 10가지 의제 (Ten-point Agenda for a qualified Architectural Education)
- 건축학교/건축학부의 교과과정에 대해 (The Curricular of Architectural Schools/Faculties)
- 건축학부예의 도전 (Challenges to Architectural Faculties)
- 계속교육에 관하여 (Invitation to Postgraduate Studies)

그는 건축이란 사회문화를 직접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10가지 의제중 무엇보다도 강조했던 것은 건축이란 디자인과 기술이, 예술과 시공이, 생각하는 것과 만들기가 각각 구분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피력했다. 건축을 공부한다는 것은 반드시 총체적이어야 하고 모든 부분을 종합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했다.

원래 프로그램에는 다섯 사람이 발표를 하게 되어있었는데 빠진 사람이 있어서 참석자들간의 토론이 있었다. 내용은 건축교육은 초등학교때부터 해야된다고(RIBA)했고, 오스트렐리아에서는 어릴 적부터의 교육의 일환으로 'BEE(Built Environment Education)' 라는 운동을 하고 있고(RAIA), 아프리카의 경우는 일을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아시아의 경우 각국의 상황에 따라 세 가지 정도

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건축사가 있어왔던 나라와 최근 30~40년 사이에 건축사(제도)라는 것이 생긴 나라, 그리고 지금 투쟁을 하고 있는 나라로 구분되므로 건축교육이라는 것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이었다. 열띤 토론이 진행되는 도중에 늦게 참석한 독일의 후베르투스 슈프룽갈라(Hubertus Sprungala) 교수가 새 천년의 건축교육(Architectural Education in the next Millenium)'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는 도중 아카시아관계자 협의차 자리를 뜰 수밖에 없었다. 이 자리에서 발표된 바는 아니지만 북한측 평양의 조선건축사동맹의 리기원 교수가 '실무교육-능력있는 건축사(Practical Education-An Able Architect)'라는 제목의 글을 부주제발표에 기고하였다. 내용은 건축설계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론과 병행하여 실무교육을 강화하였고, 많은 능력 있는 건축사들을 훈련시켜 영원히, 고유양식의 건축창조를 위해서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2. UIA/UNESCO Charter-All Directors : 25일 오후, BICC 3023실, 워크프로그램

페르난도 갈리아노(Fernando R. Galiano, Spain-제1지역)의 사회로 각 지역 교육담당 건축사/교수들이 UIA/UNESCO Charter의 후속작업에 대해 발표를 했다.

1) 패러다임 변환기의 계획 및 건축교육(Planning and Architectural Pedagogy in a time of Paradigm Change) - 아쉬라프 살라마(Ashiraf Salama, Egypt-제5지역)

UIA/UNESCO 교육현장의 후속작업인 건축교육위원회의 워크프로그램 보고서를 "아프리카와 중동에서의 건축교육에 관한 도큐먼트"라는 소책자로 제출하였다. 특히 이 지역의 건축교육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사람은 다음으로 연락할 수 있다.

Dr. Ashiraf Salama

Misr Development Co. Zone 1-Bldg-Apt27
Sheraton Heliopolis, Cairo -Egypt

E mail: <ash.bera@gega.net.>

2) 제4지역의 교육문제(Education Issues in Region IV)-루이스 콕스(Loise Cox, Australia-제4지역)

1998/99년 오스트레일리아건축사협회

(RAIA)와 학생조직망(SONA, Student Organisation Network for Architecture)의 연계작업으로 수행한 제4지역 내의 아이디어 공모전의 결과를 소형 팜플릿으로 만들어 배포하고 학생이 나와서 발표하였다. 주제는 "천년: 건축의 미래에 대한 학생 의제들(Millennium: Student Agendas for Architectural Futures)"이었고 홍콩대학, 사우스 웨일즈 대학, 와세다 대학, 뉴 델리대학, 시드니대학, 멜버른 대학, 하노이 건축대학등의 학생들이 참여한 작품전시회의 내용이었다.

3) 교육현장의 이해(Understanding of Charter)-알렉산드루 산두(Alexandru Sandu, Romania-제2지역)

러시아의 알렉산더 쿠드리아체프(Alexandre Koudryavtsev)교수와 공동으로 발표를 하였는데 가르치는 것과 실무하는 것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4) 교육현장의 후속-엔리코 리오프리오(Enrique Vivanco Riofrio, Ecuador-제3지역)

콜롬비아의 사라 마리아 기랄도 메지아(Sara Maria Giraldo Mejia)와의 공동연구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작업은 지난 98년 두 명의 부회장 주도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5개지역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현장의 후속연구를 한 것이다. 각지역의 발표가 끝난 후 토론에서는 대체로 이 현장은 유일한 국제적인 문건으로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수정 및 보완을 해야하고 무엇보다도 급선무는 실천에 일단 옮겨보아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이미 채택한 학교가 있는지? / 한 초항이라도 사실 채택되었는지? / 각국에서 이미 채택했는지? 에 대한 질문에 아마도 이 현장을 실행에 옮기는 좋은 방법이 나올 것이라고 하면서 회의를 마쳤다.

3. 아시아에서의 건축사라는 직업과 교육의 재조명 (Review of the Architectural Profession and Education in Asia-Arcasia Forum): 26일 오전, BICC 1021실, 포럼

특별히 마련된 아카시아 포럼으로 아카시아 회의시 낮익은 얼굴들이 모여서 발표했다. 한편 동시에 다른 방에서 일본건축가 타다오 안도의 강연이 있어서 스타건축가를

보려고 모두 그곳으로 몰려가는 바람에 회의장은 관련자들 뿐이었다. 로날드 पू(Ronald Poon)과 피 카시(P. Kasi)가 공동 사회를 맡고 와르디(Wardi), 배리 윌(Barry F. Will), 테이 켝순(Tay Kheng Soon) 윌리엄 림(William Lim)이 발표를 하고 다토 히삼 알바크리(Dato Hisham), 타오 호(Tao Ho) 및 인도네시아의 수마리잔토, 인디아 건축사 등이 합류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와르디는 실무와 인증 그리고 연구(Practice/Accreditation/Research)에 대해서, 배리 윌은 '건축실무(Practice of Architecture)'에 대해서, 테이 켝순은 '개인과 사회(Personality and Society)'에 대해서, 그리고 윌리엄 림은 '건축과 관련된 문화적인 사항들(Cultural issues relating architecture)'에 대해서 발표를 했다. 토론 내용중 공감하는 항목들을 약 20개 정도 추려서 좀더 발전시켜 올 가을 서울에서의 아카시아 포럼에 의제로 올리기로 했다. 주 내용은 건축사의 영역을 넓히는 일과 건축사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타건축사가 아닌 일반건축사들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건축사의 역할 및 건축교육의 주안점 - 핵심을 경쟁력 있게

1. 주거단지나 지방의 건물들 등 실질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건축의 필요
2. 건축사(Architect) 교육을 실무이상으로 확장
3. 건축사의 전문분야화 및 차별화-등록 및 인증제도의 구분화 필요
4. 시공 및 기술에 역점을 둔 교육의 필요
5. 교과과정의 우선순위화
6. 통합, 훈련, 지속개발(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의 필요
7. 건축사의 업무영역의 확대 및 조절-실내설계, 도시설계, 환경설계 및 PM의 포함
8. 이론보다 실제에 비중을 두는 교육의 필요
9. 기능보다 중요해지는 상징성 고려
10. 전문지식 결여에 따른 직업의 취약성 보완
11. 용역비와 입찰과정을 합리적으로 조절
12. 업무수준의 지속성 요망
13. 건축사 역할에 역점을 둔 교육
14. 교과과정 축소에 따른 문제점 보완
15. 입학당시의 수준 및 자질 향상
16. 건축학교의 독립의 필요성
17. 교수 부족의 해결
18. 스타건축사가 아닌 일반건축사들의 배출에 역점
19. 이웃과 사회속의 건축사의 역할
20. 정치적인 영향 축소

4. 여성건축사 및 여성도시계획가 학술발표회(Women Architects and Women Urban Planners): 26일 오후, BICC 3023실, 포럼

베이징시 여성건축사회가 주도하여 국제건축사연맹의 회장이신 사라 토펠슨 여사(Sara Topelson de Grinberg)를 모시고 중국의 루오 샤오웨이(魯曉薇)가 의장으로 진행을 했다. 사라여사는 일찍 자리를 뜨고, 발표자가 너무 많고 주제가 다양하여 진지하고 깊이 있는 발표회는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여성전문가들이 나와서 각종분야를 대상으로 학술발표회를 하는 것이 보기 좋았다. 특히 청화대학의 노 여성교수의 힘있는 강의와 내용의 전문성은 중국의 여성 후배들에게 많은 용기와 희망을 주고있는 듯이 보였다. 또한 베이징 건축설계원의 자오징자오(趙景昭) 여사가 발표한 중국의 여성건축사의 역사는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중국 최초의 여성건축사는 량쓰칭(梁思成) 선생의 부인이었던 임취인 여사로 1924년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공부를 했다. 중국에는 문화혁명 이후로 여성전문가들이 많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사실 다른 학술발표회를 듣고 싶었지만 우리 나라 여성건축사들에게 자료가도 가져다 주려고 그 회의에 참석을 했다. 통역이 없이 중국어로 진행을 하는 바람에 외국인들은 자리를 다 뜨고 말았다. 마침 내 옆에 앉은 여사께서 중요한 부분을 통역을 해 주어 고맙웠다. 또한 1988년 미국 여성건축사 100주년 기념회의때 자오(趙)여사와 함께 찍은 사진에 필자가 나와 일어서서 소개되는 바람에 다시 한 번 한국을 상기시켰다.

이상과 같이 대회 및 총회는 김지덕위원 및 이정근 위원과 함께 참석하였으므로 중복을 피하고 따로이 참석한 회의에 대해서만 언급을 했다. 이번 회의 참석중의 성과는 아카시아 포럼준비에 통신상의 어려움이 있던 부분들을 베이징에서 당사자들을 만나 해결한 점이 좋았다. 교육위원회 워크샵의 포맷을 전면 수정하고 연사도 정했다. 개인적으로는 많은 시간을 희생했지만 보람이 있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비용을 떠나서 숙소가 대회숙소였으면 다른 나라 참석자들과 오며 가며 서로 눈도장을 찍을 수 있어서 좋았을텐데 하는 점이였다. 앞으로는 회의에 좀더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고, 회의 뿐 아니라 지역별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더 많은 교류를 하고 국제건축사연맹 대회학술지에 논문도 많이 내도록 홍보를 해야할 것이다. 끝으로 나름대로 좋은 경험을 하도록 해준 협회에 감사한다.